허당 남자 드센 여자의 거듭난 남녀관계

(딤전2:11~15)

11.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12.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13.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14.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15.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허당 남자 드센 여자의 거듭난 남녀관계>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허당이라는 것은 그 뉘앙스 자체가 우리에게 충분히 의미를 알려주지요.
속에 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깁니다.
남자라고는 하는데 남자답게 해줄만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는 남자가 허당 남자입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드센 여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기로써 말로써도 정신력으로도 얼마든지 남자 위에 섭니다.
허당 남자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남자가 아니고 드센 여자도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 허당 남자와 드센 여자가 남녀로서 관계를 갖고 부부가 돼서 살아가고, 교회에서 만나게 될 텐데, 이 남자와 여자가 거듭난 관계로 나갈 수 있는 길을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거듭난 남녀관계.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많은 주석서들을 보면 '그 당시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게 오해입니다.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자가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진 귀한 문자들이고 그 문자 속에 담겨진 의미를 성령님이 해석해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받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은 시간적으로 문화적으로 제약이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시간과 문화를 초월해서 영원한 남녀관계의 선언이고 고전적 정리입니다.
남녀관계에 대해 얼마나 많은 말이 오고갑니까?
요즘 더더군다나 여성해방 운동가들의 논리, 치열하지 않습니까?
그것 다 알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또 남자의 가부장적인 제도나 문화의 타당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것도 없고, 오늘 본문 말씀이 남녀관계를 정리해주는 고전적 선언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성해방 운동가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면 죽을 때까지 여성문제에 대해 연구해도 진리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부터 이 허당 남자와 드센 여자가 거듭난 남녀관계로 돌입하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까?
결혼식장부터 한 번 시작해봅니다.
축복된 자리요, 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자가 신부가 되어서 서있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깊이 들여다보면 신부가 된다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하면, 창세 때 일어난 타락 때문에 주어져 있는 저주 아래서 아내가 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축복된 자리라고 생각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저주 아래서 아내가 되는 길이고 저주 안에서 어머니가 되는 길로 들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음을 통해서 여자가 저주받은 아내와 저주받은 어머니의 자리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말이 도저히 거부반응이 일어나서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11절에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그렇게 자신 있게 여자에게 가르쳐줄 남자가 몇이나 있겠습니까?
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여자가 가르치고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자 목사님들도 생겼고, 여자 목사님들도 얼마나 은혜스럽게 목회도 설교도 잘하시고 계십니

까?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어쩔 겁니까?
남자를 주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정치를 주관하고 있는 그런 자리에 서계신데.

자,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문화적으로 제약이 있는 겁니까?
시간적으로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에서 11절과 12절 말씀의 이해를 위한 열쇠가 주어집니다.
13절 한 마디,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바울은 천재입니다.
바울사도는 천재 중의 천재입니다.
이 13절 한 마디의 의미에 도달하지 못하면 해방신학의 박박사 학위를 받아도 여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여성신학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이 한 마디를 이해 못하면 모르는 거예요.
자,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았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서 잘 관찰을 해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자꾸 전제를 가지고 가부장적인 제도에 반항하려고 하는 전제나 아니면 남자가 우월하다는 그런 편견을 갖고 본문을 보려고 하지 말고, 성경 창세기 2장을 특별히 잘 관찰해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자가 이 세상에 등장하기 전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등장하고 여자가 참여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일어났나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십니다.
물론 창세기 1장 28절에는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거는 남녀 창조의 포괄적인 선언을 말씀하시는 거고, 그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를 2장에서 풀어줍니다.
2장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십니다.
근데 아담을 어디다 지으시나 하면, 다 준비된 낙원인 기쁨의 동산, 에덴동산에 아담을 지어서 살게 하십니다.
아담을 먼저 지으셔서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아담에게 에덴동산,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명령하시므로 이 남자에게 직업을 주셨습니다.
기쁨의 동산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자는 평생 뭐 하며 사느냐 하면, 기쁨의 동산을 삶의 터전으로 받고 그 기쁨의 동산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동산에 있는 모든 각종 실과를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여건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아담은 다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선악과 얘기를 하십니다.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 다시 말해 네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에서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면 만족할까를 네가 판단하면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좋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끌어들이지 마라, 오직 나 하나만을 네 마음속에 끌어들여라!
이게 바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명령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 에덴동산을 삶으로 허락하신 것, 직업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먹고 살 모든 것, 물질적 여건을 허락하신 이 모든 게 다 여기에 기초되어 있습니다.
이걸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 이외의 것으로 마음을 채워서 기쁘고 만족하려고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없어지게 돼있다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삶의 터전이 주어지고 직업이 주어지고 먹고 살 수 있는 여건이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 안에서 다 주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삶의 기초를 말씀하신 뒤에 '돕는 배필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와가 만들어졌을 때는 이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어마어마한 대화와 관계의 내용들이 다 오고가고 이루어진 뒤였다 이겁니다.
그러므로 하와가 아담을 딱 볼 때는 하나님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것을 주고받고 그러고 나서 자기한테 온 것이기 때문에 하와도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와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데려온 아담을 받아들이는 건데, 그 아담이 어떤 아담인가 하면, 자기가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일어난 일에 관계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고 들은 자로서 아담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일 먼저 촉각을 곤두세워야 될 것은 아담은 도대체 하나님과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지금 나를 만나고 있는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와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아담을 데려와서 '바로 너의 남편이다'라고 주신 거니까.
그래서 이 태도를 잊어버리면 창조의 질서가 무너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고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한 말씀의 의도가 여기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미 아담과 관계를 맺고 아담에게 주어진 그 삶에 참여하는 자로서 후발주자에요.
그러니 나중에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아담에게 해주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참여하면서 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종의 연장선상에서 아담을 먼저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자기보다 앞선 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13절의 말씀은 문화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사도바울은 지금 문화적 특성을 고려해서 말하는 것 이상으로, 시간적으로 제약을 받을 내용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창세기에 나오는 성경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 당시에만 해당되는 문화적 특성이 들어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이게 아닙니다.
지금도 남녀관계는 이 관계가 고려돼야 된다는 얘기에요.
먼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고려돼야 되는데, 여기서 허당 남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기쁨의 삶으로 주어지고 직업이 주어지고 먹고 살 수 있는 물질적 여건이 주어지고,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말씀이 주어져서, 그 하나님만을 마음으로 모셔 들이는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기쁨의 삶의 여건과 직업과 먹고 사는 문제가 다 남자에게 주어집니다.
근데 남자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잃어버리면 성경말씀대로 남자는 완전히 허당이에요, 하나님 빼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요, 전부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재벌총수는 어떠냐?
그건 허당 중에 허당입니다.
왜 허당 중에 허당인가 하면, 하나님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허당인데,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가치기준에 따라서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있으니 허당 중에 허당인 거예요.
이건 걷잡을 수 없는 허당인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채 석학이 돼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 내가 뭐나 된 줄로 알고 있으면 이거야말로 허당 중에 허당이고 구제불능의 허당이라는 얘깁니다.
성경이 말하는 남자는 하나님 없으면 시체에요, 앙꼬 없는 찐빵입니다.
그렇게 이 남자들이 허당이 되는 바람에 속에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주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이 오직 저주 아래만 거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상대적으로 드세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허당인 남자로부터 나오는 결론이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뭐!
그리고 맞고 안 맞고의 기준도 세상적인 기준을 갖고 들여다보니까 다 어긋나지만, 어쨌든 남자한테 맡겨서 되는 일이 별로 없는데 뭐.
그리고 봐도 마음에서 신뢰가 안 가는데 뭐!
왜? 허당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니 여자가 자연히 나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드센 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바울이 지금 그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전제는 남자가 선한싸움을 계속 해나가는 남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생활화하는 남자, 다시 말해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남자, 계속해서 마음에 하나님만을 모셔 들이려고 하는 그런 남자일 때, 남자가 먼저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창세 때 타락 이전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연상의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 여섯 살 연상이라고 하더라도 창조의 질서는 어떤가 하면, 내 남편이 아무리 못나 보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과의 관계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하시고 직업을 마련하시고 물질적 여건을 마련하시면서 거기다 나를 가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남녀관계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관계를 하시면서 삶의 터전과 직장과 물질적 여건들에 대한 인생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지금 당장 결혼할 때 그에게 직장도 없고 물질적 여건도 신통치 않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그 남자에 대해 모든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에덴동산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하나님이 저 남자를 통해 갖고 계신 계획에 참여한다는 것,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남녀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잠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잠잠해지는 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자꾸 드세지려고 하는, 자꾸 남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시하려고 하는 나를 십자가에서 죽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13절의 말씀에서부터 출발해서 14절로 이어져나갈 때 온전한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음이라’
이게 무슨 얘기를 하려는 것인지 보세요.
하나님과 아담이 그렇게 먼저 관계를 맺었어요, 모든 삶의 여건들이 다 거기서 오고갔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참여했잖아요?
그런데 타락하는 과정은 완전히 거꾸로에요, 대칭적으로 거꾸로입니다.
여자가 사탄을 먼저 만납니다.
사탄 뱀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사탄의 말에 설득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사탄의 말을 듣고 이 남자에게 허락한 모든 삶의 아름다운 여건들의 기초가 되는 선악과를 따먹어버립니다.
사탄과 여자가 먼저 만난 다음에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아담이 여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게 타락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자가 남자에게 ‘이렇게 합시다!’라는 얘기를 창조질서 속에서는 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아담이 먼저 다 만나고 있었으니까.

요즘은 남자들이 다 허당이 돼버려서,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하나님 때문에 완전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아내 앞에 나서는 남자가 없으니까, 여자들이 드세져도 할 말이 없지만, 원래 창조질서 속에서는 남자가 하나님과 충분히 만난 다음에 여자를 만나게 되니까 여자에게 주어진 삶의 여건은 남자와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 속으로부터 파생되어 나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고 그런 거예요, 돕는 배필.
근데 남자가 허당들이 돼버려 놓으니까 남자한테 맡겨놔서 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쳐주실 수가 없으니까.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마음에 끌어들여 그게 좋은 줄 알고 살고 있는 남자니까 거기에서 진리가 나올 수 없고, 삶에 대한 바른 판단이 나올 수 없죠.
그러니 그 남자를 어떻게 따라갑니까?
여자들이 팔 걷어붙이고 나설 수밖에 없는 불행한 현실이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회복합니까?
계속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 본문에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15절에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오케이, 이것까지는 이해가 되요.
근데 그 다음에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래요?
여자도 인격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 어떻게 해산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선악과를 사탄의 말을 듣고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뱀을 저주하시고 하와를 나무라시고 저주하실 때 '네가 아이를 낳으면서 무지 고통을 겪게 될 것이고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이 너를 주관하게 되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에 가부장적인 문화가 지배적이 된 것은 저주의 영향이에요, 저주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남편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습니까? 여자가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결혼한 뒤에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자식을 따르는 겁니다.
남자에게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저주의 상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것이지 남자에게 의존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가부장제도도 올바른 게 아니에요, 남자 우월주의도 올바른 게 아닙니다.
그것도 저주 아래 만들어진 사건이에요, 내용이고.
그런데 그 저주의 내용 중에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겪으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남자의 주관을 받고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을 받는다는 건, 여자로서 저주의 삶이 주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그 아내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게 다 저주의 내용이 될 거라는 얘깁니다.

죄를 안 지었어도 아이는 낳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굳이 저주의 내용에 포함시켜서 고통이라는 말과 연관시킨 것은, 아이를 낳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네 마음에 아이를 담게 될 것이다.
아이를 좋아해서 담게 되고 그걸 모성이라고 스스로 위로하면서 아이 때문에 평생을 짐을 지고 살게 될 것이다, 저주라는 거예요.
애를 마음에 담고 있으면 그 애도 잘못 되고 나도 평생 아이를 짐으로 여기면서 살아가게 되고 짐으로 키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여서 남편은 남편대로 허당인 자리에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선한싸움을 통해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셔 들이려고 하고, 나는 나대로 십자가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남편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편을 인정하면서 드세지려고 하는 나를 죽이면서 살아갈 때에 저주의 어머니와 아내로 살던 사람이 그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복된 어머니와 복된 아내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바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말로 한 것입니다.
해산함이라는 그 말이 저주 때에 얘기된 것이기 때문에, 저주 때의 그 얘기를 들어서 이제는

저주에서 풀려날 것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여기서 구원함이라는 것은 그 저주받은 어머니의 자리 저주받은 아내의 자리로부터 풀려나서 복된 어머니와 아내의 자리로 나갈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허당인 남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셔 들인 참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드센 여자가 아니라 주관하려고 하는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남편과의 관계를 인정하고 그 관계에 내가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저주로부터 풀려난 거듭난 남녀관계가 되었을 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돼요.
남자가 집안에서 살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나가서 바깥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며 살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약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직업을 갖고 살아도 남자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일어난 삶의 계획 안에 참여하는 것이고, 마가렛 대처라는 여자 분께서 영국 수상을 하고 남편이 집안에서 있었어도, 그 남자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안에 여자가 영국의 수상을 하는 일로 주어질 수 있다는 얘깁니다.
영국수상을 해도 내조고 살림을 해도 외조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다고 내조가 아니고, 여자가 하는 일이 내조고 남자가 하는 일이 외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고 여자고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자도 목사님이 될 수 있고.
그러나 그 여자 목사님의 남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영역 안에 여자가 목사로서 일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떠한 모양으로 남자와 여자의 삶이 진행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남자가 먼저 허당이 아닌 남자가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기쁨과 만족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모시려고 하는 그런 선한싸움을 싸우는 남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남자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여자가 확인해서 그 남자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존중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허락하시는 일들을 해나갈 때 여자가 대통령을 하면 어떻고 남자가 살림을 살면 어떻습니까?
살림을 사는 그 남자와의 관계에 가담하는 여자는 대통령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수도 있지요, 꼭 남자가 대통령 해야 되는 것 아니고.

문제는 남자와 여자가 십자가를 생활화하느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남자 앞에서 생활화하고 여자에 대한 관계에서 십자가를 생활화할 때에 거듭난 남녀관계가 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먼저 아담이 지어졌으므로…'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어떤 민족, 어떤 인종, 어떤 문화를 초월해서 유일하게 타당한 남녀관계의 선언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허당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남자가 되게 하시고, 드센 자리에서 벗어나는 여자가 되게 해주셔서, 둘 다 십자가를 생활화하는 남녀가 됨으로 저주의 자리에서 벗어난 거듭난 남녀관계를 이루어 온전한 에덴의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